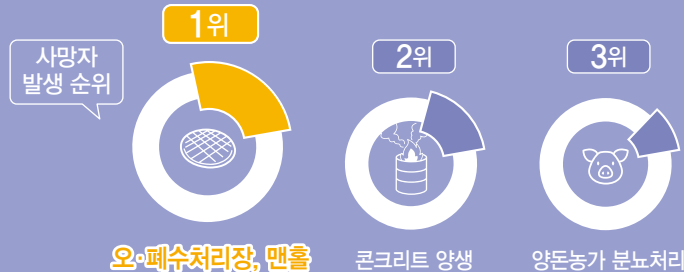


정화조, 오수·폐수·우수용 맨홀 등 질식위험장소에

그냥 들어가면 바로 사망.즉사!

질식 사고는
일반사고에 비해
40배 높은 치명적인 사고!



질식의 위험성

질식위험장소
그냥 들어가면
바로 사망!



질식위험장소
죽은 공기*를 빼내지 않으면
바로 사망!



*산소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 등 화학적
질식가스가 존재하는 공기

죽은 공기를
마시면 손쓸 틈도
없이 바로 사망!



질식위험장소 내 환기 절차

- 1 송풍기에 자바라를 붙여서 입구에서
1m 이상 밀어 넣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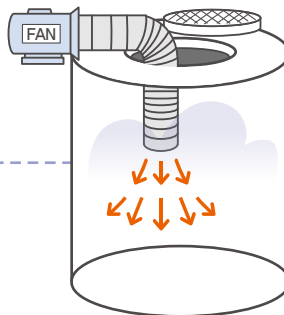
(가급적 작업 위치까지 밀어 넣는 것이 효과적임)

이런 모양의 송풍기면 환기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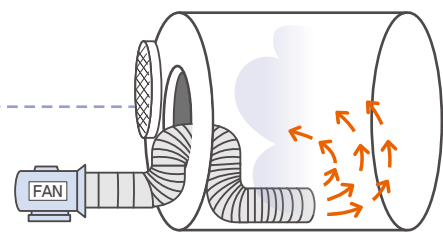
- 2 작업자가 들어가기 전, **10분 이상**
공기를 불어 넣고,

(단, 환기시간은 질식위험공간의 체적, 구조,
유해가스 발생량, 환기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

- 3 작업자가 들어간 후, 계속 **송풍기를**
틀어 놓을 것!

(단, 유해가스 발생량에 따라 필요 송풍기 대수가
증가될 수 있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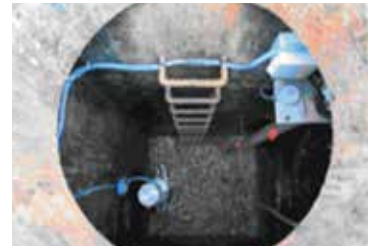
죽은 공기에 대한 대처방법! 반드시 필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!



[필수 안전수칙]

- 1. 위험성 인지** '질식위험장소'는 사망할 수 있다'는 사항에 대해 인지 및 출입금지 조치 (사전조치 없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함)
- 2. 환기** 죽은 공기는 강제 환기 없이는 잘 안 빠짐 반드시 환기팬으로 급기시켜야 함
- 3. 보호구 착용** 환기팬 가동이 불가능하면 소방관처럼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

※ 가스농도 측정기를 활용하면 유해가스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.



재해사례 1

설비 보수작업을 위해

맨홀 내부로 들어갔던 근로자가 미생물 증식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1명 사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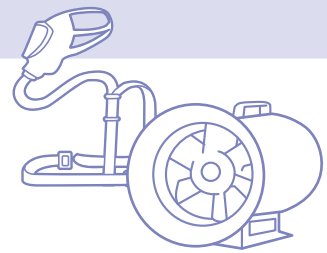
재해사례 2

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

이물질로 막힌 하수관거 정비작업을 위해 맨홀 내부 확인 후 올라오는 중 유기물 부패에 의한 황화수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추락, 2명 사망

환기팬 등 질식재해예방 장비가 없으시다구요?

우리 공단은 질식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·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, 환기팬, 송기마스크, 공기호흡기, 구조용 삼각대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.



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접속

➔ 사업안내/신청

➔ 직업건강 - 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 신청

➔ 관할구역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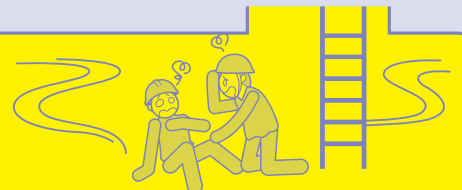
➔ 담당자 유선연락 및 방문 수령



※QR코드를 스캔하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.

질식사고는 나쁜사고*입니다.

*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고



안전보건공단

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(북정동) / 고객센터 T. 052-7030-500, 1644-4544

자료다운로드 :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→ 안전보건자료실